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

유 용 태*

요 약

본 연구는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을 고찰하였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의 동시에 향상시킨다. 이에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을 ‘읽기-쓰기-첨삭’으로 구성하고 이에 적합한 실행방안을 도모하였다. 구체적인 실행은 보고서를 중심으로 읽기-쓰기 연계를 실습하는 것이다. 이는 읽기에서 메모 및 요약 틀을 제시하여 작성하고 쓰기에서 읽기의 메모 및 요약 틀을 적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첨삭은 교수자가 읽기-쓰기의 전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보고서를 활용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방안은 부사관에게 필요한 보고서 양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끝으로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The Study on Read-write Education Method to Improve the Communication Ability for the Petty officer Majoring Students in Community Colleague

Yu, Yong-tae*

ABSTRACT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look deeper into a read-write education method for improving communication abilities of petty officer majoring students in community colleague level. The read-write education method improves reading and writing abilities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read-write education method is modified to a ‘read-write-correction’ education method and the method is planned proper ways to run the course of the education. A writing report class method which is based on ‘read-write’ education method is the key process of this education. The education method suggests directions of a taking memo and a guideline of summarizing from the reading part, and the directions of a taking memo and a guideline of summarizing are used on report writings class from the writing part of the ‘read-write’ education method. The correction part of the education method is controlled by instructors under a process of the ‘read-write-correction.’ The read-write education method by using the report writing helps to improve communication abilities in work fields because the report writing is based on utilizing document formats that can be used future in petty officer work filed. For the last, the study mentions a proposal for further tasks on this field of the study.

Key words : read-write education, read-write-correction education, read-write education method, writing report, communication abilities

접수일(2018년 11월 28일), 수정일(1차:2018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2018년 12월30일)

* 단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1. 서 론

부서관은 지휘, 교육, 보급, 정비, 행정, 부대관리 등의 임무와 역할을 수행한다. 부서관의 임무와 역할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은 필수적인 능력이며 다른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토대가 된다.

현재 군에서 부서관의 역할과 임무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서관의 읽기 능력과 쓰기 능력은 부서관이 갖추어야만 하는 기본적인 능력이다. 또한 읽기와 쓰기 능력은 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전수를 가능하게 하며 비판적 수용을 통해 군에서 필요한 역할과 가치를 스스로 생산해내는 데 요구되는 능력이다.

우수한 부서관 인력양성을 목표로 하는 부서관과는 앞으로 전개되는 부서관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의사소통 역량을 지니도록 교육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전문대학 부서관과의 의사소통 관련 교과과정은 방대한 학습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실정이다.[1]

부서관과의 의사소통 관련 교과목은 한정적으로 운용되며 여러 현실적인 교육여건을 살펴볼 때, 읽기 교육과 쓰기 교육을 단독 교과목으로 편성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한 학기 동안 이루어지는 부서관과의 의사소통 교과목에서 효율적인 글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서관과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읽기-쓰기의 교육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문대학 부서관과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을 고찰하는 것이다.

쓰기는 의미를 담은 과정이며 정확하고 독창적인 표현능력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글쓰기 교육은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비판적·창의적 사고 능력을 함양시키는 것이다.[2] 읽기는 담겨 있는 의미를 인지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읽기 교육은 글자의 의미를 파악하고 새로운 정보를 인지하는 능력과 저자와의 교감을 통해 새로운 의미를 재구성하는 개인의 전략적 사고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다.[3]

쓰기와 읽기는 대립적인 방향에 위치한 활동으로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읽기와 쓰기는 텍스트라는 내용과 형식을 공유하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점, 그리고 공통된 어휘를 기반을 비슷한 기능이나 사고를 지닌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4]

읽기와 연계된 글쓰기는 분석적·비판적 독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현상을 설명하거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읽기와 쓰기의 과정은 읽기와 쓰기가 이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의사표현의 생산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보여준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현시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는데, 읽기 교육의 목표와 글쓰기 교육의 목표를 동시에 실현하며 의사소통 능력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읽기와 쓰기를 연계한 교육이 읽기 내지 글쓰기 교육을 단독 운영했을 때보다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의사소통 교육에서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 대한 효과와 필요성에 대하여 대부분 인정하지만 세부적인 교과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 의사소통 교육이 대학 혹은 전공 별로 다르기에 따라 다양한 방법론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론적 접근을 통해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을 고찰하고 이에 따라 실질적인 글쓰기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동안 이루어진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의 연구는 크게 두 방향에서 진행되었다. 그 첫째는 읽기와 쓰기 특성과 상호작용을 고찰하여 교육방향을 모색하는 연구이다.[5][6][7] 둘째는 교육 모형을 실제적인 교과목에 적용한 연구이다.[8][9]

이러한 연구들은 부서관과의 의사소통 교육 목표와 일정한 간격을 지니고 있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인문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창의적 능력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사회적 확장에 주목하여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서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은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이란 점에서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졸업 후 입

관하여 바로 임무를 수행한다는 부사관과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부사관과의 특성과 현실적인 교육 여건에 적합한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읽기-쓰기의 연계 교육과 그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을 고찰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문서작성 교과목에서 학생들에게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읽기-쓰기 연계 교육과 부사관과의 교육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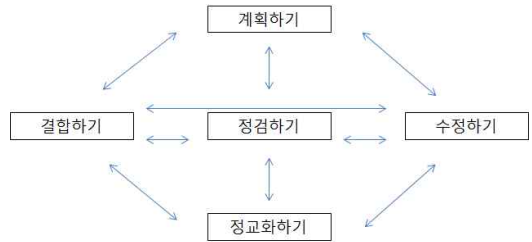
2.1 읽기-쓰기의 연계 교육

읽기와 쓰기가 단독 교과목으로 구성된 기존의 교육은 읽기와 쓰기를 분리하여 각 과정을 절차적으로 학습하고 각 부분에서 습득해야 할 방법들을 명확하게 익히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수용과 표현이라는 관점에서 읽기와 쓰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읽기와 쓰기의 연계는 상호 능력을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통합적인 언어 활동이라는 전제에서 사고, 과정, 전략 등을 학습하는 것이다.

읽기와 쓰기는 각각의 특성을 살펴볼 때 수용적 언어와 표현적 언어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둘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통적인 사고에 통합된다. 독자는 언어 지식, 글의 내용과 관련된 사전 경험과 사전 지식, 글 형식에 대한 지식 등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그것들을 바탕으로 하여 필자가 표현한 글의 내용과 형식을 이해해 나가는 읽기 과정 전반이 바로 적극적인 사고와 관련되어 있다.[10] 이는 쓰기를 통해 의미를 재구성하고 표현하는 사고 과정과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읽기와 쓰기는 상호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기존의 교육에서 쓰기는 언어의 형식으로 표현하는 행위라고 단순화하여 결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읽기는 필자가 텍스트에서 의도한

의미를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것으로만 생각하였다. 그러나 읽기와 쓰기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된다.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과정은 하나의 절차나 과정으로 단순화되거나 직선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지 않다. 읽기와 쓰기는 서로 회귀적이며 연속적인 행위로 나타나고 계획하거나 수정하는 요소들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관계에 있다. 따라서 읽기와 쓰기는 따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며 이에 읽기-쓰기의 상호 연계 교육이 가능하다.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1]



(그림 1) 읽기와 쓰기의 의미 구성 과정

읽기-쓰기 연계되는 과정은 의미의 구성이라는 동일성에서 출발한다. 읽기는 문자화되지 않은 의미 구성과정이고 쓰기는 이를 문자화를 통해 의미를 구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언어 상황에 따라 결합과 수정이 수차례 상호 교차되며 정교화되는 과정이다.

읽기와 쓰기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한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읽기가 쓰기 능력을 강화하고 쓰기가 읽기 능력을 강화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읽기-쓰기의 연계 교육은 부사관과의 현실적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이라는 효과를 보다 강화하는 방안이다.

2.2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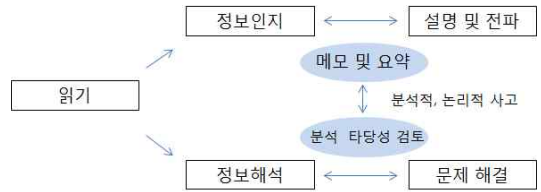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요소는 교수자와 학생 그리고 교재가 있으며 그 중에서 교수자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다. 읽기-쓰기의 연계 교육에서 교수자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것은 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는 교수자가 학생을 신뢰하고 존중할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읽기-쓰기 연계 교육의 중심이 되는 것은 교수자이며 이와 더불어 적극적인 학생의 참여이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교수자의 영향을 발휘하여 학생이 자발적으로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도록 교육 모형이 설계되어야 한다.[12]

이에 따라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의 교육 모형을 설계하기 위한 첫 번째 전제는 학생들의 흥미와 욕구, 수준에 부합하도록 교육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읽기와 쓰기에 참여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부사관과 학생의 흥미와 필요에 부응하여 학생의 능동적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수업이 설계되었을 때, 읽기-쓰기 연계를 통해 단기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신장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스스로의 역할과 가치를 생산하는 한 인간으로서, 부사관으로서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게 하는 교육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실질적인 활동을 전제로 해야 한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학생의 활동을 교수자가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이루어진다. 학생은 읽기-쓰기가 이루어지는 사고 과정을 전유하며 정보의 재구성과 문제해결을 모색하는 사고를 익히고 그에 적합한 표현을 학습함으로써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에서 쓰기 활동이 이루어지며 쓰기의 과정에 읽기 활동이 개입하면서 쓰기 능력과 읽기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13]

이러한 전제 조건을 고려하여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은 ‘읽기 - 쓰기 - 침삭’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읽기와 쓰기의 과정이 동시에 적용되도록 설계한다. 읽기는 목적에 따라 정보의 인지와 해석으로 구분되며 쓰기는 현황 설명 및 전파의 쓰기와 해석에 따른 문제 해결의 쓰기로 나누어 전개된다. 읽기 과정에서 읽기 자료에 대한 분석적,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고 이를 메모 및 요약으로 실행하여 읽기와 쓰기가 동시에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읽기-쓰기의 연계에서 읽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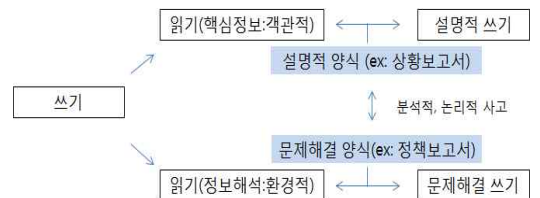


(그림 2) 읽기-쓰기 연계의 읽기

쓰기의 과정은 읽기의 과정을 바탕으로 정보인지의 설명 글쓰기와 정보해석의 문제해결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학습적인 효과를 위해서 쓰기의 과정은 읽기의 직접적인 적용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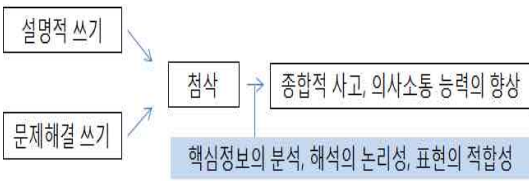
읽기-쓰기 연계 모형에서 쓰기의 과정은 객관적인 정보로 구성된 읽기 자료의 핵심어와 주제문을 파악하는 표면적 읽기를 통해 핵심 정보를 인지하고 이 정보들을 새롭게 구성하는 설명 글쓰기가 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와 더불어 읽기 자료가 지닌 암묵적 전제와 저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심층적 읽기를 통해 정보를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타당성 검토하여 문제해결을 제시하는 문제해결 글쓰기가 나머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4]

읽기-쓰기 연계 교육을 위해서는 읽기 자료의 선정이 중요하다. 읽기 자료는 학습 목표에 부합하도록 선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사관과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는 자료가 선정되어야 한다. 읽기 자료는 객관적 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적 정보와 동적 정보를 공히 포함한 자료를 선정한다.[15] 이에 해당하는 설명 내지 문제해결 글쓰기를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작성하도록 한다. 읽기-쓰기 연계에서 쓰기는 다음과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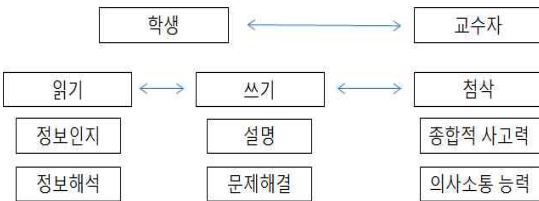
(그림 3) 읽기-쓰기 연계의 쓰기

첨삭의 과정은 학생들이 제출한 글을 바탕으로 읽기-쓰기 연계가 이루어졌는가를 교수자가 파악하고 검토하도록 설계된다. 교수자는 분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종합적으로 사고하였는지 살피고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도록 구성과 표현에 대한 첨삭을 지도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읽기와 쓰기 능력이 향상되도록 한다. 첨삭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림 4) 읽기-쓰기 연계의 첨삭

부사관과 읽기-쓰기의 연계 교육 모형은 읽기-쓰기의 과정과 이를 검토하는 첨삭의 과정을 통해 종합적 사고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읽기-쓰기의 연계과정에서 학생들이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고 읽기에서 학습한 내용이 쓰기에 적용되고 쓰기에서 읽은 내용이 적용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읽기와 쓰기의 각각에서 장점은 향상시키고 단점은 보완하여 실질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킨다. 구체적으로 부사관과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의 전체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

3.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실행방안

3.1 부사관과의 교육여건에 적합한 읽기-쓰기 교육 방안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은 군 관련 전문 교육과정을 다루어야 하며 이에 따라 체계적으로 의사소통의 전 영역을 각각의 단독 교과목으로 전수하기는 어려운 형편이다.[16] 이는 달리 말하면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은 유사성을 지닌 영역을 하나의 교과목에서 같이 다루어야 전 영역을 전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에서 쓰기 교육은 문서작성과 관련된 교과목으로 부사관과의 교과과정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한 학기 한 과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문서작성의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것이기에 단기적인 학생들의 쓰기 능력의 향상에 효과가 있으나 지속적인 의사소통 활동으로써 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 부사관과 학생들은 내일의 부사관으로서 필요한 의사소통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부사관과의 학생들에게 의사소통 역량을 지속적으로 신장시키는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한 인간의 완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으나 효율적인 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실질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어서 시행한다는 차이가 있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부사관이 문서작성과 관련하여 보다 많이 접하는 보고서에 중점을 두며 학생들의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1. 교양있는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최종적인 목표로 한다.
2.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3. 문서의 양식에 맞추어 글을 작성한다.
4.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작성한다.
5. 정해진 시간 내에 문서를 작성한다.

3.2 보고서 작성을 활용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부사관과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문서작성 교과목을 진행하는 동안 읽기 자료를 통한 문서작성을 수행한다. 읽기-쓰기 연계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읽은 내용의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과 핵심 정보를 구성하여 쓰는 표현 능력의 연계를 직접 확인하고 자신의 읽기와 쓰기의 문제점을 동시에 파악하는 장점이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읽기와 쓰기 능력을 향상시키고 지속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는 방법을 교수하는 것이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는 교육 모형의 '읽기-쓰기-첨삭'의 과정을 실행하여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읽기와 쓰기는 거의 동시에 진행되며 이 과정에서 읽기 과정의 내용 메모와 작성된 글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첨삭이 이루어진다.

부사관과 읽기-쓰기 연계 교육의 시작은 교육목표에 부합하는 읽기 자료를 선정하는 것이다. 읽기 자료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을 정도의 분량을 선정하고 핵심 정보를 파악하기 용이한 자료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10분-15분 사이에 정독이 가능한 분량을 선정한다.
2. 선정된 텍스트의 핵심 정보를 학습자가 파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자료
3. 학생들의 관심과 흥미를 끌 수 있는 자료

읽기 자료는 A4지 1-2장 정도의 분량이 적당하며 핵심 정보가 5-10개 정도가 놓여 있는 자료가 적당하다.[17] 기존의 읽기 교육에서는 읽기 자료에 대한 핵심어와 주제문을 파악하거나 읽은 것에 대한 감상이나 평을 함으로써 읽기 능력을 파악하였다. 부사관과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이를 확장시켜 설명 글쓰기와 문제해결 글쓰기에 해당하는 읽기-쓰기 교육을 진행한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글쓰기의 대표적인 양식인 설명 글쓰기와 문제해결 글쓰기로 진행된다. 설명 글쓰기에서는 핵심 정보의 파악과 정보의 전파에 해당하는 상황보고서의 양식을 적용한 것이며 문제해결 글쓰기는 핵심 정보와 정보의 환경적 요소를 해석하여 새로운 방안을 제

시하는 정책보고서를 적용한 것이다.

읽기-쓰기 연계에서 우선시 되는 것은 읽기이다. 읽기는 읽기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읽기 과정에 쓰기가 포함되어 있다. 우선 읽기 전은 학생들에게 읽기-쓰기 연계에 대한 이론적 수업을 진행하고 실행한다. 읽기 자료를 배포하고 쓰기를 위한 읽기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읽는 과정에서 메모 및 요약은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이 과정을 통해 쓰려는 글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읽기 중은 핵심 정보와 주제문을 찾아내는 인지적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읽음과 동시에 핵심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일정한 틀을 주고 이를 작성하여 쓰기 단계에서 작성된 문서와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메모 및 요약의 틀은 제시된 틀에 맞추어 작성하며 핵심 정보를 작성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읽기와 핵심 정보 메모에 총 20분 정도의 시간을 제시하여 작성하도록 하며 20분이 넘어가면 핵심 정보의 작성을 멈추게 한다. 핵심 정보의 작성 틀은 다음과 같다.[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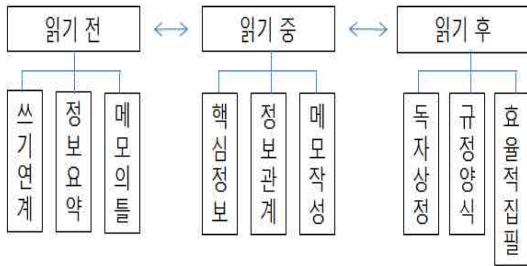
<표-1> 메모 및 요약의 틀

작성날자: 소요시간:	핵심 정보	핵심 정보	핵심 정보
핵심 정보	핵심 정보	핵심 정보	핵심 정보
주제문			
정보의 상관 관계			

일반적으로 쓰기 과정은 주제선정-자료수집-구상-개요-집필-퇴고의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읽기-쓰기 연계 과정은 읽기 중 단계에서 자료수집 및 구상의 과정을 검토하게 함으로써 쓰기 과정을 줄이며 효율적인 글쓰기를 가능하게 한다.

읽기 후는 정해진 보고서 양식에 맞추어 정보를 구성하고 집필에 들어간다. 읽기 후 단계에서는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정해져 있음을 상정하며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게 맞추어 정보를 구성하도록 한다. 보고서를 읽는 사람이 빠른 시간 내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양식에 따라 정보의 구성을 고려한다. 쓰기 전, 읽기 자료의 핵심 정보를 제시하여 읽기 자료에서 핵심 정보의 중요도 여부, 정보의 관계망에 대하여 제시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학생들의 쓰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 파악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서 읽기 전, 중, 후의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6) 읽기-쓰기 연계의 읽기 과정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읽기 후 쓰기가 바로 이루어져 학생들에게 읽기-쓰기의 효율적인 실습을 경험하게 한다. 또한 핵심 정보를 구성하는 보고서 양식을 정하여 눈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는 것을 확인하는 글쓰기를 함으로써 효율적인 의사소통 역량을 함양하게 한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서 쓰기는 보고서 양식에 읽기의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및 요약 틀을 적용하여 집필하는 과정이다. 쓰기는 핵심 정보를 눈으로 구분하고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 양식을 제시하고 이에 부합하게 보고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쓰기 과정에서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상황보고서에는 목적, 전체요약, 핵심 정보의 구성, 평가 등의 요소로 규정된 양식을 맞추어 작성하며 정책보고서에는 목적, 분석 및 요약, 해석의 타당성 및 방안, 예상결과 및 진행방안 등에 맞추어 작성하도록 한다. 각 보고서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표-2> 상황보고서 양식

수신자	작성일자 작성자 및 소속
제목	
1. 작성 목적	
2. 상황 요약	
3. 핵심 정보의 구성	
4. 현재 상황의 평가	
5. 예상되는 상황	

<표-3> 정책보고서 양식

수신자	작성일자 작성자 및 소속
제목	
1. 정책의 배경 및 목적	
2. 문제의 명확화	
3. 현재 상태 원인 분석	
4. 정책 목표	
5. 정책 시행 방안 및 예상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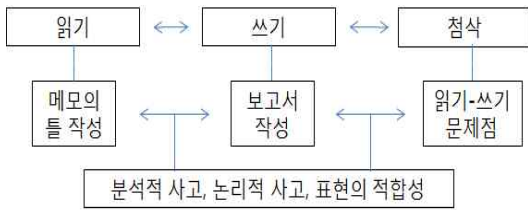
읽기-쓰기의 연계 과정에서 쓰기 과정은 읽기-쓰기 연계를 통해 글에서 핵심 정보를 인지하고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글을 구성하고 표현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쓰기의 과정은 분석적 사고를 통해 핵심 정보를 파악하고 타당성을 갖춰 글을 구성하는 논리적 사고력을 신장시킨다. 또한 수신자에게 적합한 표현으로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점에서 의사소통 역량에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

을 동시에 증진시킨다.

쓰기 과정에서 상황보고서와 정책보고서의 양식을 제시함으로써 읽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및 요약 틀을 문서작성에 적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서를 작성한다는 장점이 있다. 이는 정해진 시간 내에 정해진 문서를 작성할 수 있는 교육방안으로 효율적으로 쓰기 능력의 향상을 달성하는 방안이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서 마지막 과정은 첨삭이다. 첨삭 과정은 학생들이 작성한 ‘메모 및 요약 틀’과 ‘보고서’를 교수자가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에게 읽기-쓰기 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교수자는 첨삭 과정에서 핵심 정보와 주요 내용이 포함, 정보의 중복, 구성의 타당성 등의 3가지 중점으로 살펴본다. 또한 메모 및 요약의 틀에서 읽기 과정의 핵심 정보 파악, 정보의 관계 설정의 타당성 등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읽기-쓰기 연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도한다. 구체적으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의 실행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그림 7)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보고서를 활용한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교육 방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읽기와 쓰기 능력을 동시에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부사관에게 필요한 보고서 양식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앞으로의 업무와 관련된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이라는 장점이 있다. 또한 부사관과의 교육 여건과 변화하는 부사관의 역할과 임무에 적합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점에서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새로운 교육과정에 방향을 제시한다. 특히, 부사관과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도적 학습을 통해 자신의

의사소통 능력을 눈으로 확인하며 수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의사소통 역량의 함양을 모색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4. 결론

지금까지 전문대학 부사관과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읽기와 쓰기는 텍스트라는 내용과 형식을 공유하며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이라는 점, 그리고 공통된 어휘를 기반을 비스듬한 기능이나 사고를 지닌다는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읽기-쓰기는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며 읽기-쓰기의 능력을 상호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은 통합적인 언어 활동이라는 전체에서 사고, 과정, 전략 등을 학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읽기와 쓰기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하나의 행위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읽기와 쓰기는 따로 분리된 개체가 아니다. 오히려 읽기-쓰기를 상호 연계한 교육이 필요하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 모형은 ‘읽기-쓰기-첨삭’의 과정으로 구성되며 읽기와 쓰기의 과정이 동시에 적용된다. 읽기는 목적에 따라 정보의 인지와 해석으로 구분되며 쓰기의 과정은 읽기의 과정을 바탕으로 정보인지의 설명적 글쓰기와 정보해석의 문제해결 글쓰기로 이루어진다. 첨삭의 과정은 학생들이 제출한 글을 바탕으로 읽기-쓰기 연계가 이루어졌는가를 교수자가 파악하고 검토하는 것이다.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방안은 부사관의 문서작성과 관련하여 많이 접하는 보고서에 중점으로 실행하여 학생들의 실질적인 보고서 작성 능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읽기 과정은 읽기 전, 중, 후로 나누어서 진행되며 읽기 과정에 쓰기가 포함되어 있다. 읽기 전은 글의 양식에 따라 쓰기에 적합한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읽기 중은 핵심 정보와 주제문을 찾아내는 인지적 읽기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생들에게 읽음과 동시에 핵심 정보를 적을 수 있도록 일

정한 틀을 주고 이를 작성하여 쓰기에서 활용한다. 읽기 후는 정해진 보고서 양식과 보고서를 읽는 사람에게 맞추어 정보를 구성하고 표현하는 방안을 고려한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서 쓰기는 보고서 양식에 읽기 과정에서 작성된 메모 및 요약 틀을 적용하여 집필하는 과정이다.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상황보고서에는 목적, 전체요약, 핵심 정보의 구성, 평가 등의 요소로 규정된 양식을 맞추어 작성하며 정책보고서에는 목적, 분석 및 요약, 해석의 타당성 및 방안, 예상결과 및 진행방안 등에 맞추어 작성한다.

읽기-쓰기 연계 교육에서 마지막 과정은 첨삭이다. 첨삭 과정은 메모 및 요약 틀과 보고서를 교수자가 검토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생에게 읽기-쓰기 과정의 문제점을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인 접근을 통해 읽기 교육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읽기와 쓰기 능력의 실질적인 향상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차후 연구는 부사관과의 읽기-쓰기 연계 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규명하는 방향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며 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1] 송준화·천명희, “국가안보에 적합한 인력양성을 위한 부사관 후보생의 의사표현 능력 향상 방안 연구”, 융합보안, 제14권, 제6호, p. 122, 2014.
- [2] 김정녀, “대학 읽기·쓰기 통합 교육의 실제와 교육방안”, 한민족문화연구, 제44권, p. 447-450, 2013. 참조
- [3] 김승환, ‘독서교육과 독서활동’, 강남대학교 출판부, pp. 33-35, 2006. 참조.
- [4] 윤정옥, “읽기와 쓰기의 통합에 의한 설명적 글지도 방법 연구”, 청람어문교육, 제17권, pp. 232-262, 1997. 참조
- [5] 김혜정, “읽기쓰기 통합과정에서 의미구성의 내용과 이행과정 연구”, 독서연구, 제11호, 2004.
- [6] 이선옥, “대학 글쓰기에서 자료 읽기와 쓰기 교육의 통합 방향성 모색”, 국어국문학회, 제149호, 2008.
- [7] 정희모, “대학 글쓰기의 교육 목표와 글쓰기 교재”, 대학작문, 제1호, 2010.
- [8] 이재승, “읽기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제11호, 2004.
- [9] 김미란, “다섯 가지 텍스트 해석 방법을 활용한 읽기 중심 교육 모형의 개발”, 대학작문, 제5호, 2012
- [10] 윤정옥, “읽기와 쓰기에 통합에 의한 설명적 글지도 방법 연구”, 한국교원대 석사논문, 2017. 참조.
- [11] 전인한, “읽기·쓰기 통합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pp.13-17, 2014.
- [12] 신헌재·이재승, ‘학습자 중심의 국어교육’, 박이정, pp. 29-30, 1997.
- [13] 이재승, “읽기 쓰기 통합 지도의 방법과 유의점”, 독서연구, 제11호, 2004. 참조.
- [14] 사고와표현편찬위원회 편, ‘사고와표현’, 노스보스, pp. 99-125. 2013. 참조.
- [15] 유용태,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교육방안 연구”, 융합보안, 제18권, 제2호, p. 126, 2018.
- [16] 유용태, “안보환경에 적합한 해군부사관과의 의사소통 교육방안 연구:맥락적 의사소통을 중심으로”, 융합보안, 제16권, 제3호, p.48, 2016.
- [17] 유용태, “전문대학 부사관과의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교육방안 연구”, 융합보안, 제18권, 제2호, p. 128, 2018. 참조
- [18] 아사다 스쿠루 저, 서경원 역, ‘종이 한 장으로 요약하는 기술’, 시사일본어사, pp.70-88. 2016. 참조

[저자소개]



유 용 태 (Yu, Yong-tae)

2001년 2월 학사

2003년 8월 석사

2013년 8월 박사

email : yong0208@hanmail.net